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◎ 정치

[데일리 오피니언\(한국갤럽\) 제572호 \(2024년 1월 4주\)](#)

- 양대 정당 대표 역할 평가,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, 5개 정당별 총선지지 의향여부 등

[전국지표조사\(주요 4개 조사회사\) 리포트 제114호 \(2024년 1월 4주\)](#)

- 국정운영 평가, 정당지지도,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, 부동산 정책 평가 등

[2030 女 “여성정책 보고 투표할 것” 남성의 2배](#)

문화일보_2024.1.24.

◎ 사회 일반

[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...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](#)

조선일보_2024.1.24.

[‘인구 블랙홀’ 수도권 기업 6% 늘 때, 경남은 28% 사라졌다](#)

서울신문_2024.1.28.

[이젠 반려동물 ‘49재’까지... 전용 법당도](#)

조선일보_2024.1.23.

[금천구는 가정폭력·아동학대...강남구는 성매매 최다](#)

중앙일보_2024.1.23.

[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...한국, 애 들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](#)

중앙일보_2024.1.25.

[aT "설 차례상 비용 약 31만원... 작년과 비슷"](#)

조선비즈_2024.1.23.

[‘나혼자 산다’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...중·고위험군 22.4%](#)

연합뉴스_2024.1.28.

["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"...미국 인기 심리연구가 진단](#)

연합뉴스_2024.1.18.

[‘팬데믹’ 30대 여성 셋 중 하나 자살충동, 남성 2배...왜?](#)

한겨레_2024.1.25.

◎ 청년 / 청소년

[“디지털기기 1시간 더 쓰면 수학 3점 하락”](#)

동아일보_2024.1.24.

◎ 경제 / 기업

[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 1위·제주 '꼴찌'...격차 1천200만원](#)

연합뉴스_2024.1.20.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[서울 직장인 상위 0.1% 평균 연봉 14억원...강원 0.1%와 3배 차이](#)

연합뉴스_2024.1.27.

[달달한 '시럽급여'?...비자발적 퇴직자 절반은 "받지도 못했어요"](#)

경향신문_2024.1.21.

[직장인 20% "지난 2주간 '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'고 생각"](#)

한겨레_2024.1.28.

[인력난 굳어진 韓 "2040년까지 해외서 연평균 45만명 데려 와야"](#)

중앙일보_2024.1.24.

[중국시장서 작아지는 한국...중수입액 비중 6%대로 밀려](#)

연합뉴스_2024.1.28.

◎ 세계 / 국제

["AI보다 기후변화가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"](#)

연합뉴스_2024.1.21.

["지구종말시계, 종말까지 90초...작년과 같지만 안정 의미 아냐"](#)

연합뉴스_2024.1.24.

◎ 건강

[온몸 아픈데 확진까지 평균 1년...원인 모르는 섬유근육통](#)

중앙일보_2024.1.20.

["이 운동 하면 10년 더 산다" 3위 축구, 2위 배드민턴, 1위는?](#)

조선일보_2024.1.24.

◎ 기독교 / 종교

[미디어, 신앙성장에 큰 도움](#)

한국기독교공보_2024.1.15.

["4명 중 1명 반려인"...이젠 반려동물 동반예배까지 등장](#)

데일리굿뉴스_2024.1.23.

[교회 떠나는 다음세대...2030 개신교인 10년 새 '반토막'](#)

데일리굿뉴스_2024.1.16.

◎ 기획기사 : 유예사회 갇힌 한국, (중앙일보)

[64년생 vs 93년생 인생시간표, 취업·결혼 4년씩 더 밀렸다](#) _2024.1.25.

[90대 노모-30대 아들 다 부양하는 5060... '낀세대'는 설 수 없다](#) _2024.1.25.

[2008 금융위기 직격탄, 80년대생부터 유예세대 본격화](#) _2024.1.25.

["3년 투자 땀 30년간 역대연봉"...취업·결혼 이래서 미룬다](#) _2024.1.26.

['재택스' 빠진 유예세대 "아껴야 잘산다? 아끼지 말고 잘살자"](#) _2024.1.26.

["12억 집 물려받아"vs"내가 집안 일으켜야"...엇갈린 유예세대](#) _2024.1.26.

[33세 '늦깎이 신입' 늘었다...취업 유예가 만든 비효율 사회](#) _2024.1.29.